

環黃海地域에 있는 경제교류와 기술연휴의 가능성

1. 처음으로

21세기에 들어서 가속되고 온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조류는 환황해지역에서 지방의 모습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세계화가 IMF위기를 가져온 요인이며, IMF이후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서 다국적기업의 유치하려고 했다. 다국적 기업에게 선정되기 위해서는 인프라·환경정비가 요청된다. 그것은 동아시아제국의 다른 지방에도 들어맞을 것이니까, 지방은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하여 국경을 넘어가는 지역간경쟁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자유무역협정(FTA)의 교섭·체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FTA체결이 가져올 산업경제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는 빈번히 의논되고, 벌써 체결된 한미 FTA에 관련해서는 대규모한 시민운동으로서 반응이 나타난 것은 주지하는 바다. 세계화와 지역주의는 지방을 둘러싸는 환경을 변화해 가고, 그에 대하여 지방은 대응을 강요된다는 구도가 부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지방이 수동적인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건너가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통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협력에 나가는 사례가 많이 보이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 九州地方, 중국의 황해연안지역의 4성·3시로 이루어진 환황해지역이 그렇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오늘, 세계적인 문제가 지방의 문제에 직결하여 지방주민들도 각종 미디어와 해외경험을 통해서 국제사회·경제의 정세에 정통하게 되었다. 또 예를 들어 환경오염문제와 같이, 직접 영향을 당하는 지역은 한정되어서 중앙정부가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대처할 보장은 없고, 오염원도 피해지역도 복수의 나라에 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지역이 적극적으로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무제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환황해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는 국제네트워크가 성행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네트워크에서의 지방간의 관계는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국제교류」의 단계는 벗어나서 서로 협조하면서 공통한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협력」의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방간의 협력사업이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로서 제기되고, 특히 협력분야의 하나로서 과학기술 혹은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분야의 협력도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IMF위기 이후에 지식기반경제의 실현을 장래 Vision으로 들고 벤처기업이나 산업 Cluster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바다. 한국(지방)에게는 당연히 국제협력을 통해서 지방경제의 「지식기반화」에 도움이 될 것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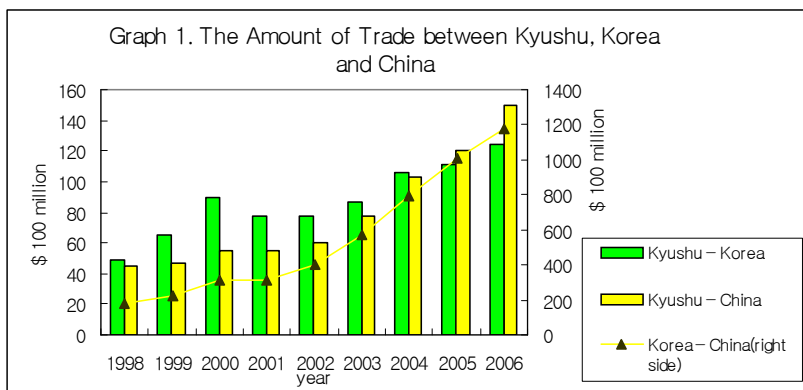
본 보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무제의식부터 먼저 환황해지역에 있는 경제교류의 상황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과학기술협력을 향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2. 九州지방에 의한 환황해지역의 경제교류

(1)경제교류의 현황

여기서는 먼저 九州측의 자료로 경제교류의 현황을 확인하기로 한다. IMF위기 이후의 역내 무역의 추이를 보면 [Chart 1] 와 같다. IT불황에 부딪친 2001년에는 총 무역액은 줄어들었지만, 그 후에는 순저로이 늘어났다. 2006년에 九州-한국간, 九州-중국간 각기 124.1억 달러, 149.8억 달러로, 1998년과 비하면 각기 2.5배, 3.7배로 증가해 왔다. 또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은 2001년에도 줄었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왔다. 2006년에는 1998년과 비해 6.5배로 증가된 1180억 달러에 이르렀다.

환황해지역에서 주요 무역품목은 전기기계 및 일반기계로, 이들에 정밀기계, 수송기계를 더해서 기계기분기분야에서 기술수준에 따른 역내 수평분업이 진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九州企業의 한-중 양국에 대한 투자상황을 보면 2006년시점의 누계 총해외투자건수 708건 중에 중국으로의 건수는 40.1%에 당하는 284건으로, 그 중 환황해지역(황해연안의 4省3市)은 214건이었다.

또 한국기업에 의한 중국으로의 진출은 15,916건으로, 총대외진출건수의 47.7%를 차지한다.

(2)지역연휴를 위한 경제교류회의

국제적인 경제관계의 모습은 물론 세계화된 대기업에 의해서 크게 규정되었다. 지방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은 세계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대응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넓힐 수도 있다. 국제사업을 전개하기에는 인력도 자금도 부족한 중소기업이 한국·중국과의 경제기술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상호간에 이해조정을 행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九州에는 중앙정부의 地方局으로 九州經濟産業局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九州經濟産業局을 九州측의 창구로서 한국과는 1993년부터 「한국·九州경제교류회의」를, 중국과는 91년부터 「중국·九州산업기술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왔다.

이들 회의에서는 지방에 기반으로 두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보유하는 자원을 상호보완하면서 무역, 물류, 투자, 산업기술의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 촉진하기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양쪽부터 나오고 합의된 것은 실시된다. 併催事業으로서 무역촉진세미나 및 투자환경설명회도 개최되고 있다. 또 교류가 깊어지기에 따라서, 산업기술교류파견단의 상호파견이나 아시아산업교류페어로의 참가 등의 민간기업간 교류도 정착했다. 더욱이 양쪽의 기업이나 경제단체가 본회의에 맞추어서 민간 Round Table을 설치하여 민간가 독자로 의견교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2자간에 추진되어온 회의개최를 통한 국제교류는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九州·중국 3자에 의하여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7번 계속되었다. 매년 각국·지방의 행정기관, 경제단체, 기업들이 경제기술교류의 촉진에 도움이 되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회의에서 의논, 검토해서 합의된 항목은 경제기술정책에 반영된다. 회의의 내용 및 주요성과는 해마다 달라지는데 2007년 회의의 개요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의 개요

목적	한국·중국·九州의 환황해지역에 있어서 경제기술교류를 더욱더 긴밀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체, 경제단체등이 일당에 모여서 환황해지역의 상호발전의 방향성, 상호교류의 원활화와 확대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삼국간의 교류를 확립하고 무역·투자·기술교류 등의 실물경제의 추진에 의한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을 지향한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회의의 실시(九州 ·한국·중국의 삼자가 경제기술교류의 촉진에 도움이 되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다가, 회의에서 교류사업실시에 관한 합의를 형성해서 연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환황해지역에 있는 연구개발 협력의 추진 ·환황해지역에 있는 商談會나 무역투자 Mission 의 실시 								
주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상담회의 개최나 Mission파견. ·환황분야에 있는 금후의 한일 cluster간(한국: 산업간지공단 ECO사무국,九州: 환경·Recycle 산업교류 플라자 (K-RIP)) 에 있는 MOU (우호 교류협정) 재결을 통한 교류협력. ·대학간 교류로서九州工業大學과 창원대학교간에 대학보유특허의 민간 이전에 관한 협력협정을 재결. 								
개최실적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border: none;">제1번 01년九州·福岡市</td> <td style="width: 50%; border: none;">제5번 05년 한국·대전광역시</td> </tr> <tr> <td style="border: none;">제2번 02년 한국·전주시</td> <td style="border: none;">제6번 06년 중국·日照市</td> </tr> <tr> <td style="border: none;">제3번 03년 중국·威海市</td> <td style="border: none;">제7번 07년九州·熊本市</td> </tr> <tr> <td style="border: none;">제4번 04년九州·宮崎市</td> <td style="border: none;"></td> </tr> </table>	제1번 01년九州·福岡市	제5번 05년 한국·대전광역시	제2번 02년 한국·전주시	제6번 06년 중국·日照市	제3번 03년 중국·威海市	제7번 07년九州·熊本市	제4번 04년九州·宮崎市	
제1번 01년九州·福岡市	제5번 05년 한국·대전광역시								
제2번 02년 한국·전주시	제6번 06년 중국·日照市								
제3번 03년 중국·威海市	제7번 07년九州·熊本市								
제4번 04년九州·宮崎市									

資料：九州經濟産業局「九州アジア國際化レポート」2008季版。

회의에서는 무역투자예의 거래관계뿐만 아니라 Internship사업에 의한 인력육성이나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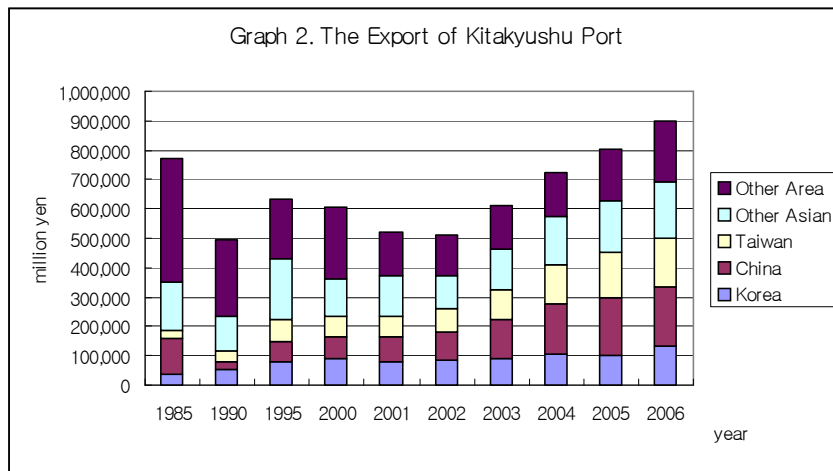
연구개발등 다양한 기술교류사업도 취급되게 되었다. 표에서 보이는 듯이, 최근에는 환경 관련분야에 산업 cluster 단위로 교류가 시작되고 있고, 또 보유특허의 민간이전에 관한 협력사업도 시작되었다. 특히 대학에 의한 기술교류가 환황해지역에서 추진되게 된 것은 나중에 언급할 「環黃海産學官連携大學學長포럼」에 의한 것이다.

3.北九州市의 환황해지역 경제교류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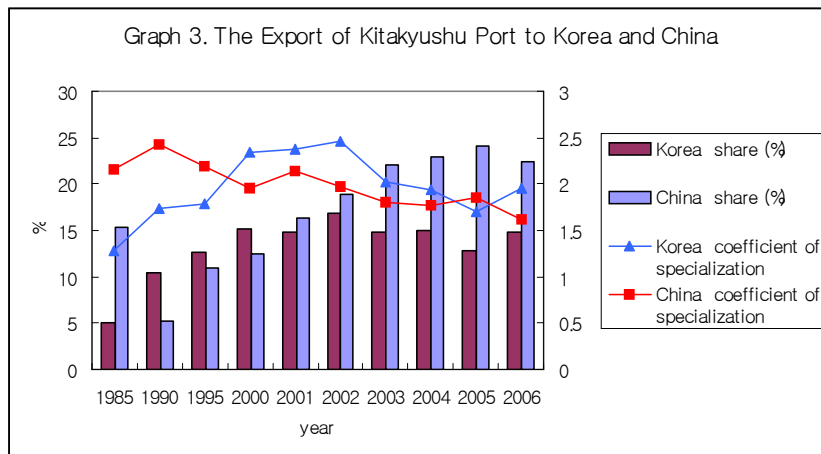
(1)北九州市의 경제교류상황

北九州市는 九州地方의 일각으로서 위의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여해 왔는데 동시에 독자로 환황해지역에 대한 국제교류를 전개하고 왔다. 여기서는 北九州市의 국제교류활동의 배경으로서 北九州港의 무역상황을 개관한다.

北九州港의 수출액의 추이를 보면, Graph 2에 보이는 듯이 1985년에는 7696억엔을 기록했다가 감소경향을 보여서 2002년 이후에는 순저로이 증가해서 과거의 85년 수준을 웃돌렸으며 2006년에는 과거 최고액인 9015억엔을 기록했다. 그런데 Graph 2를 보면 수출 대상이 크게 변화한 것이 알아볼 수 있다. 1985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이외의 지역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근년에는 23~24%정도로, 한국·중국·대만의 3국만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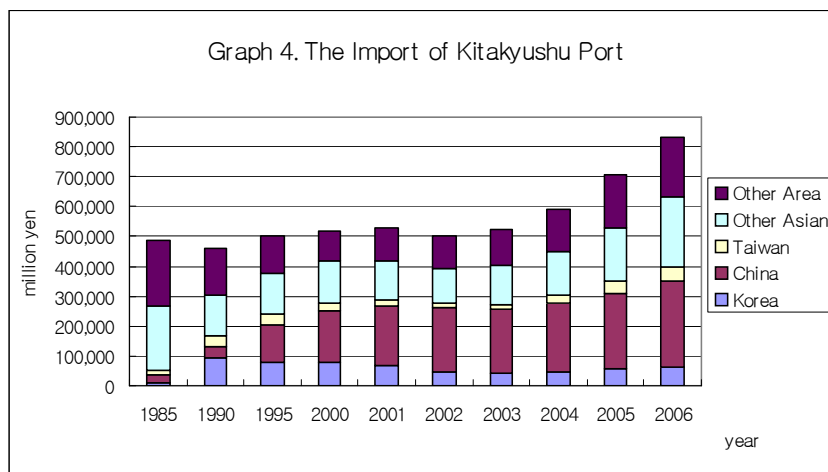


다음으로 대상을 한국과 중국에 한정해서 北九州港의 수출추이를 보면 Graph 3 와 같다. 여기서 막대그래프는 총 수출액에 차지하는 양국에 대한 수출액의 구성비를 표시하고, 선 그래프는 北九州港에 있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구성비를 일본전체에 있는 구성비로 나눈 특화계수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의 구성비는 1990년 이후 12~17%로 추이되고 왔는데 중국의 구성비는 90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근년에는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 특화계수를 보면, 전 기간을 통해서 1을 웃돌고 있어서 2006년에는 한국이 1.91, 중국이 1.61을 보이고, 이런 점부터 北九州港에게 수출시장으로서의 양국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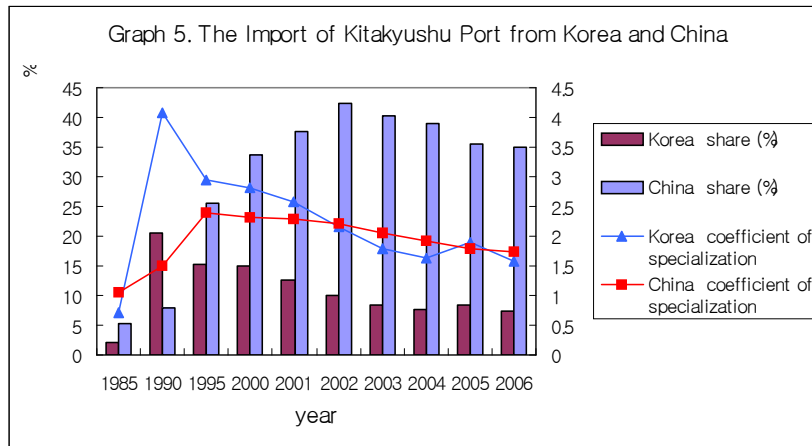


수입에 대하여는

Graph 4·5로 볼 수 있다.1985년 시점에는 호주나 인도네시아부터의 연료자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한국, 중국, 대만의 근린 3국(지역)부터의 수입은 10%정도였다. 그런데 수출과 마찬가지로 그 후에는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3국과의 무역증가가 총 수출액은 증가하게 했다.



Graph 5에는 Graph 3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의 구성비와 특화계수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대하여 보면 1995년에는 구성비가 25%를 넘어서 2002년에는 42%까지 상승했다가 그 후에는 점점 저하했으며 2006년에는 35%를 보인다. 한편 한국에 대하여는 1990년에 구성비로 20%, 특화계수로 4라는 극히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그 후에는 중국의 비중상승에 따라서 비중을 떨어뜨려서 2006년에는 7.4%이었다. 그럼에도 트화계수는 1.6로, 일본의 평균 수준을 뜻하는 1을 웃돌어 있다.



(2) 北九州市의 국제 교류·협력 활동의 전개

北九州市는 九州經濟産業局이 주도하는

환황해지역 교류에 참여하면서 자매도시 관계에 기초하는 독자적 국제교류·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것은 전무연구기관 「국제동아시아연군센터」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거기에서의 「환황해경제권」에 대한 연구활동과 병행해서 1991년에 「환황해 6도시회의」가 개최되게 되었다.

「환황해 6도시회의」는 北九州市와 下關市를 중심으로 각국의 한국·중국의 자매(우호) 도시를 회원도시로 발족하였다. 1992년에는 한중양국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이래 더 많은 도시가 가맹하여 2000년에 10도시를 헤아려지게 되었고 명칭도 「동아시아도시회의」로 바꿨다. 또 취급되는 주제도 환황보전 세미나나 청소년스포츠교류 등의 공동사업, 물류·통신·관광·산업기술 등 여러 분야에의 경제교류, 더욱이 연구기관교류회의 등으로 확충되어 갔다. 이 「동아시아도시회의」가 가져온 성과로서 중국 大連市의 환황보전계획에 대한 北九州市의 협력사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도시회의」가 설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무렵에 문제점이 뚜렷이 나타나고 왔다. 가맹도시의 「시장회의」가 2년에 1번, 「실무자회의」가 1년의 1번씩 개최되었는데 이런 빈도로는 의논을 깊이기가 어려워 공통한 과제의 해결에 이르지 못되었다. 또, 「시장회의」, 「실무자회의」와 따로 각 도시의 상공회의소에 의하여 개최되어 왔는데 이 회의의 투의 내용이 시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동아시아를 견인할 만하는 도시간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에는 행정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들어서 주목되게 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조류도 엿보면서 문제점을 극복할 새로운 도시간 네트워크가 모색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4년에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가 설립되었다. 설립에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서 모노즈크리(제조업), 정맥산업(환황산업), 관광산업, Logistics(물류산업) 등의 4분야를 택하며, 각 분야마다 부회를 설치했다. 각부회에는 기업가, 기술자, 연구자들을 구성원으로 넣어서 새로운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産學連携, 기술이전, 새 산업의 발굴 등을 해 나간다. 그리고 이들 4부회 간에 총합조정이나 복수의 부회에 걸치는 과제에 대해서는 「부회사업 추진본부」가 통괄부문으로 설치되었다.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에는 환황해경제권의 발전에 향하여 취급할 로서 다음 5개 중과제를 설정했다. ①지역한정판 「동아시아 FTA」, ②환황해 환경모델지역의 창출, ③

New Business 창출시스템의 구축, ④환황해 관광브랜드전략의 전개, ⑤기술교류·인력육성 플랫폼의 형성 등이다. 위의 각 부회에는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의 프로젝트가 점토·제기된다.

4. 환황해지역에 있는 기술협력의 모색

1990년대부터 계속된 환황해지역 및 北九州市를 비롯한 동아시아 10개 도시에 있는 경제교류는 회의만 아니라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실무본위로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방을 위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이 전개되게 되면 지역중소기업간에 국경을 건너간 제휴의 가능성도 많아지고 혁신활동의 국제화를 위한 channel로서 기능하는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다.

이런 사례로서 한편으로 環黃海經濟·技術交流會議와 아울러 개최되는 「環黃海產學官連携大學學長포럼」과, 「東아시아經濟交流推進機構」의 부회의 하나로 설치된 「모노즈크리 (製造)」 부회를 들 수 있다.

(1) 「環黃海產學官連携大學學長포럼」

2005년에 「環黃海產學官連携大學學長포럼」이 발족했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참여대학에 의한 產學官連携의 성공사례의 정보교환,
- ② 성공사례의 발표와 더불어 그 성과(기술 혹은 기술상품)의 홍보·판매의 기회제공,
- ③ 성공사례의 발표를 ET(환경기술), BT(생명공학), IT(정보통신기술), NMT(신소재기술), 기계·전기, 반도체 등 특정분야에 나누어서 실시,
- ④ 지역내 산학관연휴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대학을 「인력교류거점대학」으로서 선정해서 「인력육성교육센터」를 설치,
- ⑤ 지역내 산학관연휴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대학을 「기술교류거점대학」으로서 선정해서 「기술교류센터」를 설치.

「環黃海產學官連携大學學長포럼」은 사무기구가 갖추어졌지만 독자재원은 없고 참여대학의 기존설비를 활용하면서 연구자와 연구분야에 대한 정보수집과 Data Base 구축 등부터 착수하려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2) 「東아시아經濟交流推進機構」의 「모노즈크리 (製造)부회」

「東아시아經濟交流推進機構」에 대하여는 중점과제·공동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역 내에서의 「기술교류·인력육성 플랫폼의 형성」을 내걸고 있다. 「東아시아經濟交流推進機構」의 구상 안에는 「나라를 걸친 <기술의 집적구조>를 공유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기술수준을 높이는 구조를 이 지역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 지역 내의 知的創造 연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도시에 있는 대학 등의 지역 COE(Center of Excellent)나 Science Park, 기술이전기관과의 네트워크화, 유학생의 상호교환에 의한 인력육성」, 그리고 이들 기관들이 「기존 중소기업의 연구·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휴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환황해지역전체의 산학연휴의 추진이 제창되고 있다. 이런 구상을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추진해 가는 무대로서 「모노즈크리 (製造)부회」는 위치되고 있다.

「모노즈크리 (製造)부회」는 과거 4번 개최되어 왔다. 이 부회에는 각 가맹도시의 기업 Data Base의 구축과 활용, 홈페이지의 충실 등을 추진하기로 되고 있다. 또 산업분야로서는 반도체산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문연구자들에 의한 토론을 행하는 「半導體實裝 국제 Work Shop (MAP)」, 그리고 반도체 Module 에 필요한 기술에 대하여 정보교환과 Business Matching 을 하는 「東아시아 반도체 Module 逆見本市」도 동시에 개최되어 왔다.

(3) 선행사례로서의 EU

이런 국경을 건너가는 지역 간 혁신(Innovation)연휴에 대하여는 EU에서 오랜 세월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EU에는 공공사업에 자금공급을 행하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이 기능하고 있었는데 1990년초부터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각 지역에 있는 혁신전략의 작성과 시험적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지역이 타지역과 협력하면서 歐洲委員會의 지원 밑에 지역혁신전략프로젝트를 작성·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혁신전략을 작성 혹은 실행하려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상호협력과 경험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歐洲혁신지역네트워크(The Innovation Regions in Europe <IRE> Network)가 조직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에는 EU 가맹 25개국의 235개지역 참가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 혁신촉진에 관한 새로운 수법·기구와 지역 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이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IRE 네트워크 밑에는 지역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혁신전략의 경험을 공유하는 마당으로서 상호학습플랫폼(Mutual Learning Platform: MLP)도 설치되고 있다. 이 MLP는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요망을 고려에 넣어서 당해지역이 스스로 지역전략을 책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EU의 지역혁신지원시책은 배경으로는 지역통합이 완전경제통합에 가까운 단계까지 진전되어서 구주위원회 밑에서 EU 가맹국에 공통한 조치를 책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또 15년을 웃도는 경험이 있다. 그 것에 대하여 환황해지역에서는 「環黃海産學官連携大學學長포럼」이나 「東아시아經濟經濟交流推進機構」의 「모노즈크리 (製造)부회」 등 지역혁신지원의 제도가 생긴 지 얼마도 안 된다. 환황해지역에게는 국경을 건너가서 지역혁신 지원에 특화된 국제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EU의 사례는 대단히 시사를 준다. EU와 같은 지역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면 한국뿐만 아니라 환황해지역의 모든 지방은 국제적인 경로를 통해서 더 많은 기술정보와 혁신경험을 얻을 수 있다.